

그레코-로만 세계와 초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euergetism)¹⁾

임진수*

들어가는 말

그레코-로만 세계는 기원전 33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촉발된 동서양 문명의 만남, 충돌, 융합이 일어나는 시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동서양 문화의 만남, 충돌, 융합이라는 문화현상은 '유대교와 헬레니즘'(Judaism and Hellenism)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예시적으로 나타난다.²⁾ 이 대립적 용어는 각각의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 특징은 유대교(Judais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구약성경 외경 마카베오하 2장 21절³⁾과 그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헬레니즘(Hellen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마케베오하 4장 3절⁴⁾을 통해서 확인된다. 필자는 이미 '유대교와 헬레니즘'이라는 개념 속에 동서양의 종교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 연구 지원 인문 사회(일반연구 과제번호 NRF-2011-32A-A00050)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저작은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astinas bis zur Mitte des 2. Jh.sv. Chr.* (Tübingen: Mohr, 1973) 이다.
- 3) "유대교(Ioudai'smoj)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의 도움으로 적은 병력으로 온 땅을 점령하고 많은 야만인들을 몰아내고.." 『공동개정』; 계속해서 마카베오하 8:1; 14:38을 참조하라
- 4) "이렇게 불경건한 사이비 대사제 야손의 극심한 모독적인 행위로 그리스화 운동(-Ei'hnismoj = 헬레니즘)은 극도에 달하였고 이국의 풍습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공동개정』

와 문화의 충돌과 융합에 대한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⁵⁾

이 논문은 이런 기존 전제를 바탕으로 동서양이 만나면서 만들어 냈던 그레코-로만세계의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그레코-로만세계의 경제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상은 자선가 사상(euergetism)이다.⁶⁾ 이 개념은 그레코-로만 세계에 형성된 유대교 문헌과 당시의 로마의 시민들이 남긴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⁷⁾ 그레코-로만 세계 안에서 유행했던 자선가(euergethj)와 그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자선가 사상(euergetism)이 예수와 초대기독교 발전과정에서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레코-로만세계의 자선가 사상이 초대기독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그 현상이 당시 세계의 경제관념과 가치변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5) 임진수, "헬레니즘기 이후 서양 고대 세계의 지배자 승배에 대한 저항 : 유대교와 기독교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29 (2011), 149-194.
- 6) 이 용어의 토대가 되는 헬라어 euergethj는 자선가, 자선가, 은인으로 번역된다. 이 말은 eu(=good)+ergathj(laborer, worker)에서 파생했다. 따라서 자발적인 선행이라는 의미에서 '자선가로 다루고 그에 대한 사상을 '자선가 사상(euergetism)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개념이 영어에서는 benefactor(자선가), beneficiary(수혜자), benefit(혜택, 이득)과 같은 단어들을 파생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신학 분야의 자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한국신학정보원(www.iktinos.org)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 연구들은 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장양미, "신약성서로 세상읽기(2): 헌금과 자선", 『기독교사상』 646 (2012) 148-157; 노성기, "자선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신학전망』 175 (2011) 278-305; 조병하, "Cyprianus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과 자선"에 대한 교훈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26 (2010) 171-199; 최무열, "구약과 신약 및 교부시대 자선사상의 이음줄 역할로서의 토비트서 연구", 『부산장신논총』 8 (2008) 301-328; "4-5세기 기독교 성인전에 나타난 '가난한' '자선사업가(euergetes)", 『서양고대사연구』 25 (2009), 319.
- 7)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자선가 사상에 대한 논의는 S. Matthews, "Ladies' Aid: Gentile Noblewoman as Saviors and Benefactors in the Antiquities", *HTR* 92 2(1999), 199-218.; G. Gardner, "Benefaction in the Second Century B.C.E.," *JBL* 126:2 (2007), 327-343을 참조하라.

1. 자선가 사상(euergetism)에 대한 정의

‘자선가 사상’을 의미하는 ‘euergetism’이라는 용어는 A. 블랑거(Boulanger)⁸⁾와 H. I. 마루(Marrou)⁹⁾가 처음 사용했고, 이 용어를 학문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P. 베이뉴(Veyne)¹⁰⁾다. 베이뉴는 이 개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말은 헬레니즘의 법령의 형식에 따라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도시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돈이나 행동으로 ‘그 도시에 선행을 했던’(euergeteîn thn polin) 그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장려하고자 했다.¹¹⁾

이 설명 속에는 ‘그 도시에 선행을 했던’(euergeteîn thn polin) 사람의 행동을 ‘선행’(euergesia)으로 칭송하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자선가/선행가’(euergethj)로 부르는 것으로 자선가들의 행동과 이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그레코-로만 세계 안에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지도층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이용하여 도시와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 자선의 수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자선가에게 존경과 감사로 응답하는 상호호혜(reciprocity)를 의미한다. 자선가들이 보여주는 자선행위는 도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헌납, 음식물 제공, 건축, 공공오락, 방어시설구축, 군사작전 지원, 운동경기 지원, 다양한 지방의 공적인 업무 지원, 지역의 축제나 제사를 위한 후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선가들의 자발적인 후원은

8) A. Boulanger, *Aelius Aristide et la sophistique dans la Provincia d'Asie* (Paris: De Boccard, 1923), 25.

9) H. I. Marrou, *Historie de l'éducation dans l'antiquité* (Paris: Seuil, 1948), 405.

10) P. Veyne, *Brot und Spiele. Gesellschaftliche Macht und politische Herrschaft in der Antike*, K. Laerman und H. R. Brittnacher, tras. (München: Dtv, 1994). 원래 이 책은 *Le Pain et le cirque* 라는 제목으로 1976년 출판된 것을 1988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가 다시 발행한 것이다.

11) P. Veyne, *Brot und Spiele*, 22.

어떤 도시나 지역을 위한 혜택(benefits)이 되었고, 그 혜택의 수혜자들은 그에 대한 답례나 감사를 포함으로 상호간에 교환(exchange) 관계를 윤리로 발전시켰다. 이 결과들은 당시에 자선가들이 세운 건축물이나 비문에 새겨지거나 혹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알려졌다.¹²⁾ 이 논문은 자선과 관련된 행위들과 관념들을 '그레코-로만세계의 자선가사상(euergetism)'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선가(euergethj) 라는 단어 안에는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던 명예로운 결정들(honorific decrees)이 있었다. 필자는 고대 유대교 문헌과 헬레니즘 세계의 문헌에서 상용되던 이 개념이 예수와 초대기독교로 이어지는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되어 당시의 자선가사상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선가(euergethj)라는 어휘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고대 그리스 사회에 널리 퍼졌던 명예칭호였다.¹³⁾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단어는 선행을 매개로 하여 도움을 주는 쪽과 도움을 받는 쪽을 구분한다.¹⁴⁾ 이 단어는 그리스-로마 시대로 이어지면서 '상호호혜(reciprocity)'의 윤리를 형성하며 주는 자와 받는 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선물교환(gift exchange)'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선행(euergesia)을 베푸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명예(timh, honour)를 얻고, 수혜자는 그 선행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선가의 명예를 인정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 세계 안에서 그리스의 왕들이 위기에 처한 폴리스를 구해내는 것은 선행/자선으로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왕을 신적인 위치에서 경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초기 헬레니즘

12)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자선가로 칭송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공적에 대한 연구는 F. W. Danker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F. W. Danker, *Benefactor: Epigraphic Study of a Graeco-Roman and New Testament Semantic Field* (St. Louise: Clayton Publishing House, 1982).

13) H.-J. Gehrke, "euergetism", *Der Neue Pauly*, vol., 4 (1998), 229 는 자선가사상에 대한 개념과 역사를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B. Kötting, "Euergetes", *Reallexikon für Antike und Christentum*, vol. 6 (1966), 848.

14) B. Kötting, "Euergetes", 850.

시대의 왕이나 영웅들은 자선가라는 칭호를 가지고 신격화(apotheosis) 되기도 했다. 이 칭호는 때로는 왕이나 영웅, 정치가나 철학자, 발명가나 의사들에게도 적용되기도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신들에게도 적용되었다.¹⁵⁾ 그러므로 자선가 사상은 유헤메리즘(euhemerism)의 토대가 되었고 동시에 사람도 신격화된 자선가로 이해되기도 했다.¹⁶⁾ 그 결과 알렉산드로스 이후 가속화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의 통치시기에 자선가 사상은 자선가/후견인(benefactor-patron)과 의뢰인/가신(client)의 관계를 형성하여 권력의 수직적인 주종관계를 만들어 냈다.¹⁷⁾ 당시 황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선가라는 칭호를 즐겨서 사용하고자 했다. 이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 칭호였는가 하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이후에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왕국을 세운 후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의 왕의 칭호¹⁸⁾와 로마황제들의 목록¹⁹⁾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자선가 사상의 칭호에 대한 용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1. 프톨레마이오스 3세 유에르게테스(euergethj): 기원전 246-222
2. 프톨레마이오스 8세 유에르게테스(euergethj) 2세: 기원전 145-116

-
- 15) G. Bertram, "euergetew, euergethj, euergesia", *ThWNT II*, 651.
 16) 이것은 태고의 신들이 그 시대의 왕들이었다는 주장으로 신화는 곧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신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시도한 사람이 기원전 340-260년에 살았던 메세네의 유헤메로스이며, 그의 이름을 따라서 유헤메리즘이라 부른다. 헬뮤트 콕스터, 『신약성서배경연구』, 이역부 역(서울: 은성출판사, 1996), 261-263.
 17) 후견인과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논문은 J. H. Neyrey, "God, Benefactor and Patron: The Major Cultural Model for Interpreting the Deity in Greco-Roman Antiquity", *JSNT* 27 4 (2005), 465-492를 참조하라.
 18) 마틴 헝얼, 『신구약 중간사』, 임진수 역 (파주: 도서출판 살림, 2004), 226; B. Köttling, "Euergetes", 853-854.
 19) C. R. Koester, "The Savior of the World (Jn 4:42)", *JBL* 109 (1990), 666-667.

로마 황제들의 목록

1. 아우구스투스(기원전 31-기원후 14)와 티베리우스(기원후 14-37)
- 모든 세상의 자선가와 구세주”(**euergethj** kai. swthr tou/sumpantoj kosmou)
2. 네로(기원후 54-68)와 티투스(기원후 79-81)
- 세계의 구세주와 자선가(ᶜswthr kai. **euergethj** thj oikoumenhj)
3. 베스파시안(기원후 69-79)
- 세상의 구세주와 자선가(swthr kai. **euergethj** tou/ kosmou)
4. 트라야누스(기원후 98-117)
- 모든 세상의 구세주와 자선가(ο pantoj kosmou swthr kai. **euergethj**)

위의 사례들은 지배자들이 ‘자선가’ 칭호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신적인 구세주이며 인간들을 위한 자선가로 선전했음을 보여준다. 자선가 칭호는 ‘구세주’(swthr) 칭호와 결합되어 그 의미가 더 강조된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선가로서 어떤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경제력을 자발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빵과 오락’(panem et circenses)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이 슬로건은 로마의 고대 시인 주베날(Juvenal)²⁰⁾이 아래의 문장으로 당시의 사회를 비판한 것에서 유래한다.

로마의 백성은 역할이 가능했던 공화국 시대에 자발적으로 고위 장교에게 권력을 부여했고 공무원들을 선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스럽게 정치는 하지 않고 단지 ‘빵과 오락’(panem et circenses)이 두 가지만 바란다.²¹⁾

이 진술은 왕이나 황제, 귀족들에게 부여되었던 권력을 부여하였던 대중이 ‘빵과 오락’(panem et circenses)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트라야누스 황제²²⁾ 시대에도 “로마의 백성은 곡물과 오락이라는 두 가지에만

20) 원래의 이름은 Decimus Iunius Iuvenalis 이며 줄여서 Juvenal이라고 부른다. 그는 로마의 풍자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불분명하지만 1-2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http://de.wikipedia.org/wiki/Panem_et_circenses를 참조하라.

21) P. Veyne, *Brat und Spiele*, 83을 참조하라.

22) Marcus Ulpius Traianus (53-117, 재위기간 98-117).

집착하고 있다”(populum Romanum duabus praecipue rebus, annona et spectaculis, teneri)는 유사한 비판이 나타난다.²³⁾ 이것은 당시의 정치가들, 특히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음식과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을 세상을 위한 자선가라고 선전했음을 말한다. 그리고 자선가 사상은 황제숭배로 이어지는데, 황제숭배의 신격화 과정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 제사를 바치기 위한 건물, 황제를 기리는 축제,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를 위해서 황제는 ‘자신의 땅’이라고 부르는 제국의 영토에서 비용을 마련했고, 이렇게 황제에게 집중된 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top down) 당시 사회의 수직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 냈다.²⁵⁾

이 권력구조는 황제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선가를 후견인(patron)으로 부르는 지배자 입장과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의뢰인/가신(client)이라는 관계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중재인(broker)이 존재했다. 당시에 상위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의뢰인/가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중재인을 이용했고, 의뢰인/가신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중재인은 후견인과 가신들 사이를 오고가면서 후견인-가신(patron-client)의 관계를 만들어 냈다.²⁶⁾ 이 관계는 오랫동안 로마제국을 유지하는 틀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로마제국의 통치와 그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 관계는 다시 예수가 몸담았던 유대교와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초대기독교의 발전과정에도 존재하고 있었다.²⁷⁾ 그러므로 이

23) 이 언급은 당시 로마의 문법과 수사학자이며 판사였던 프론토(Fronto)의 것이다. http://de.wikipedia.org/wiki/Panem_et_circenses를 참조하라.

24) 황제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연구는 P. Herz, “Der Kaiserkult und Wirtschaft,” M. Ebner, E. Esch-Wermeling *Kaiserkult*, eds., *Wirtschaft und spectacula*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11), 55-80을 보라.

25) S. Joubert, *Paul as Benefactor. Reciprocity, Strategy and Theological Reflection in Paul's Collec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0), 51.

26) S. Joubert, *Paul as Benefactor*, 28.

27) 앞의 각주 7을 참조하라.

어지는 논의는 그레코-로만 세계의 자선가사상이 예수와 초대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지배자 권력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래에서 위로'(bottom up) 올라가 수평적인 상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²⁸⁾

2.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자선가 사상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이 그레코-로만 세계의 수직적인 자선가 사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초대기독교의 자선가 사상이 당시의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수평적인 상호부조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베이뉴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수평적인 상호부조의 형태는 유대교의 신명기 정신과 모세 오경에 기초한 대중 도덕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본다.²⁹⁾ 상호부조의 형태는 당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이 서로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의 대중들이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가르침에서 유래한다. 반면에 고대 그리스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그런 행동이 미덕으로 칭송을 받는 경우도 드물었다.³⁰⁾ 자선가 사상이라는 의미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스토아 사상의 박애사상(philanthrops)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³¹⁾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박애사상의 관점도 수직적인 권력의 하향구조를 띠고 있었다. 베이뉴는 예수와 초대기독교가 처음에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여 유대교의 가지고 있던 대중도덕

28) S. Joubert, *Paul as Benefactor*. 29.

29) P. Veyne, *Bröt und Spiele*, 43.

30) P. Veyne, *Bröt und Spiele*, 42.

31) P. Veyne, *Bröt und Spiele*. 43.

(Volksmoral)을 소종파도덕(Sektenmoral)이 되게 했다고 주장한다.³²⁾

베이뉴가 말하는 소종파도덕은 상호간의 부조와 사랑을 소종파 내부의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예수의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확고한 연대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당시의 사회 안에서는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의 위협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종파도덕에서 출발한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이 점차적으로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으면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기구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이뉴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대중도덕을 가지고 소종파도덕으로 바꾼 것은 예수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³³⁾ 그러므로 이어지는 논의는 당시의 자선가 사상에 대한 예수의 입장이다.

예수가 자선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22:24-30에 나온다. 이 본문 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수직적인 자선가 사상을 예수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나타난다.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과 가롯 유다의 배반예고 및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를 다루고 있다.³⁴⁾ 여기서 다루는 누가복음의 주제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to. tij autwh dokei/ eimai meizwn) 하는 논쟁으로 마태복음 20:24-28; 막 10:41-45와 평행을 이룬다. 이 평행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선가들'(euergetai)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누가복음의 자선가 사상과 관련된 언급은 22:24-30 중 24-26절에 집중되고 있다.

32) P. Veyne, *Brot und Spiele*. 45. 베이뉴는 "상호간에 돕고 구제금을 주는 대중도덕은 소종파도덕이 되었다"(Die Volksmoral der gegenseitigen Hilfeleistung und der Almosen wurde zu einer Sektenmora)고 말한다. 게르트 타이센, 『기독교의 탄생』, 민영식, 박찬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08의 각주 10은 베이뉴의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33) P. Veyne, *Brot und Spiele*, 45.

34) W. Grundmann, *Das Evangelium nach Lukas* (Berlin: Evangelischer Verlagsanstalt Berlin, 1984), 401.

<사역>

24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다. 2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선가라고 부른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더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위의 본문이 보여주는 주제는 '다툼'(filoneikia)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원래 이 단어는 filoj+nikh의 합성어로 고전 그리스어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신약성서 안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다.³⁵⁾ 그 의미는 '싸움을 좋아함', '자기만 옳다고 주장함', '다툼'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싸움의 내용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더 큰'(meizwn)이라는 비교급은 의미상 예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가?' 하는 최상급(Superlativ)의 절대적인 용법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더 큰 사람'은 제자들 그룹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을 말하는 권력에 대한 다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당시에 유행하던 자선가들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의 자선가 사상에 대한 예수의 비판적인 태도는 25-26절에 잘 나타난다. 이 문장은 마가복음 10장 42-43절에 나오는 예수와 야고보에 의해서 촉발된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에 나오는 예수의 말과 유사하다(아래의 각주를 보라).³⁶⁾ 누가의 이 본문은 이방인들의 왕들과

35)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9,28-24,53)*, EKK III/4 (Zürich/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Verlag, 2009), 265쪽의 각주 37을 참조하라; 고전 11:16은 filoneikoj 라는 형용사를 한번 사용한다. 이 단어의 의미도 자신의 완고함과 옳음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성향을 말한다.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6,12-11,16)*, EKK VIII/2 (Benziger/Neukirchner: Benziger Verlag, Neukirchner Verlag, 2009), 523.

36) 42 kai. proskalesamenoj autouj o' Ihsouj legei autoij\ oidate oti oi dokouh tej arcein twh eqnwn *katakuriupusin* autwh kai. oi' megal'oi autwh *katexousiazousin* autwh\ 43 ouc outw j de, estin en umih(al' I'oj ah qel'hj megaj genesqai en umih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자선가들’(euergetai)로 ‘부른다(kalouantai)는 것이다.³⁷⁾ A. 다이스만(Deissmann)은 예수가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선가라는 소리를 듣고자 했던 고고학적인 비문들을 소개하며, 예수도 이런 현상들을 직시하고 있었다고 말한다.³⁸⁾ 25절에서 “이방인들의 왕들”(oi basileij twh enw)은 지중해 동부 영역에서는 왕과 황제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³⁹⁾

예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 이 본문에서 예수가 사용하는 ‘다스린다(kurieuw)는 동사는 당시의 왕들의 태도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갈리굴라(Galigula)나 도미티안(Domitianus) 같은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남용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며⁴⁰⁾, 2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다툼도 권력다툼으로 ‘권력의 남용’이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lord over)을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⁴¹⁾ 그리고 같은 문장에 나오는 ‘권세를 행하는 자들’(oi exousiazontej) 역시 당시 로마제국의 황제나 왕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⁴²⁾ 이들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estai umwh diakonoi.

- 37)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kalew 동사의 형식은 3인칭 복수 중간태 혹은 수동태로 읽을 수 있다. 필자는 자선가라는 칭호가 원래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관계성(reciprocity)에 의거한다면 수동태로 해석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예수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J.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ncB 28a (Garden City: Double Day & Company, Inc., 1985). 1416이하.
- 38) A. Deissmann, *Licht vom Osten* (Tübingen: Mohr, 1923), 214-216.
- 39) 신약성서가 형성된 배경에서 동양에서는 로마의 황제들을 왕으로 불렀다 (딤후 2:2; 계 17:9). J. Roloff, *Der Brief an Timotheus*, EKK XV (Zürich/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1988), 115; 데이비드 E. 아우네, 『요한계시록 17-22』, WBC 52하,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5), 132.
- 40) E. Klostermann, *Das Lukasevangelium*, HNT 5 (Tübingen: Mohr, 1924), 211.
- 41) D. J. Lull, “The Servant-Benefactor as a Model of Greatness (Luke 22:24-30)”, *NT 23 4* (1986), 290 이하.
- 42) F. W. Danker, *Benefactor*, 294.

하고자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자선가(euergethj) 칭호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예수는 당시의 황제들과 왕과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스스로 내세우던 자선가 사상을 비판했던 것이다.⁴³⁾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단 한 번 소개되는 '자선가' 칭호는 예수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 사회의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시의 자선가 사상이 선행을 장려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권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⁴⁴⁾

이에 대해서 예수는 당시의 자선가 사상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예수는 26절에서 25절에서 말했던 당시의 권력가들이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을 자선가로 선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반박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umeij de our outwj)고 말한다. 이것으로써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배와 통제와 억압의 수직적인 권력은 예수의 정신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상호부조의 사회구조로 변화되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다. 그 전환의 길은 "오히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al lV o' meizwn en umih ginesqw wj o' newteroj kai. o' hgoumenoj wj o' diakonwh)는 문장에 나타난다. 이 말속에는 '더 큰 자(o' meizwn) ↔ '가장 어린 사람(o' newteroj)', '다스리는 자(o' hgoumenoj) ↔ '섬기는 자(o' diakonwh)의 대립적인 관계가 들어있다. 이 대립에서 '더 큰 자와 '다스리는 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을 말하며, '가장 어린 사람과 '섬기는 자는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쉽의 새로운 방향성을 말한다. 예수는 당시 권력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포기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과 권력의 행사를 타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한다.

43) 각주 37과 41의 예를 참조하라.

44)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9,28-24,53)*, 266.

이 언급은 예수의 공동체가 당시의 사회에서 권력의 행사를 타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며 예수의 공동체와 그 제자들은 참된 권력 행사를 타자를 섬기는 봉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사회 안에서 예수가 던진 이 말의 급진성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의 구성원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구조가 지향했던 정치적인 서열과 권력의 우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시의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하여 자선가 칭호를 사용한 것이 허구임을 폭로한다. 이 급진성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구조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대안가치와 당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상태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기존의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사회구조의 서열화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당시의 사회경제구조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본보기는 마태복음 25:31-46에 나오는 예수의 마지막 심판설교에서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당시 사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활동과 선행은 동양에서도 미덕으로 받아들여져 비문으로 새겨져서 칭송을 받곤 했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자선행위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당시의 황제나 왕들, 귀족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베푸는 표시로 목욕시설, 극장, 시장, 수도건설, 먹거리와 오락(panem et circus) 등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행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충성을 보장받고 자신들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원했다. 이 자선행위의 약점은 바로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집단이나 계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의 자선가 사상을 가지고 예수가 강조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전개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그런 예를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묘비를 남겼는데, 그 묘비들 안에는 이승에서 명성을 얻어 저승으로 가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그 염원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행을 알리는 것으로, 마태복음 25:31-46에 나오는 예수의 마지막 심판설교와 비교된다.⁴⁵⁾

집사장 하르바(Harwa)의 비문중 일부 ⁴⁶⁾	마태복음 25:41-43(개역개정)
<p>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을 해 왔다. 나는 아무런 흠이 없으며 진실로 명예로운 자다. 나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혈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나는 고통을 물리치고 궁핍을 몰아내었으며, 명예로운 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러주고 늙은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빈곤의 고통을 추방시킨 자였다. 나는 고아들이 쉴 수 있는 그림자가 되었고, 과부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관직을 수여한 자였다...</p>	<p>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는니라 하시니 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혈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 이까(our dihkonsamen)</p>

두 이야기와 비교하여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며, 예수가 인자(ο uiioj tou/anqrwpou, 31절), 임금(ο basileuj, 34절), 주(kurioj, 37절)라는 칭호를 통해서 종말의 심판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는 알레고리화 된 특징을 보여준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 왼쪽에 나오는 이집트의 집사장 이었던 하르바가 남긴 비문의 내용은 그가 살아서 선행으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45) 게르트 타이젠, 『기독교의 탄생』, 183.
 46) E. Otto, *Die biologischen Inschriften der ägyptischen Spätzeit. Ihre geistgeschichtliche und literarisch Bedeutung* (Leiden: Brill, 1954), 222; 게르트 타이젠, 『기독교의 탄생』, 183에서 재인용.

것이다. 그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당시 사회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자선가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하르바가 행해야 했던 부자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수직적인 자선의 문제를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상호원조라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수평적인 상호원조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 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에 대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 책임의식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 안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한 부류로 이해되는 “이 나의 가장 작은 형제들”(outoi oi adel foi. mou oi twh elacistoi)이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된다. U. 루쯔(Luz)는 이들을 예수의 제자 파송과 관련이 있는 카리스마적인 방랑설교가들로 이해한다.⁴⁷⁾ 그러나 타이센은 이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⁴⁸⁾ 필자의 경우도 타이센이 주장하는 ‘모든 이방인들’(panta ta eqnh, 32절)과 유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독교인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자선가 사상이 소종파적인 윤리에서 대중의 윤리로 발전하였다는 타당성을 제공하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하르바 비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는 당시 상류층이 추구해야 하는 덕으로 칭송되던 널리 알려진 행위였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예수는 당시의 약자이며 가난한 자로 살아가던 자신의 추종자들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라는 수평적인 차원으로 전환

47) U.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t 18-25)*, EKK I/3 (Zürich/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Verlag, 1997), 531, 538.

48) 게르트 타이센, 『기독교의 탄생』, 183의 각주 12번에 나오는 타이센의 주장을 참조하라; “Die Rede vom großen Weltgericht(Mt 25,31-46). Universales Hilfsethos gegenüber allen Menschen?,” A. Götzlmann and V. Herrmann, eds., *Diakonie der Versöhnung* (FS. Theodor Strohm, Stuttgart: Quell Verlag, 1998), 60-70 중 63을 참조하라.

시키고 있다. 예수의 이 말은 당시의 자선가 사상이 보여주던 지배자와 피지배의 수직적인 상호호혜를 사회적인 약자들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수평적인 상호원조로 전환시킨다. 특히 위에서 제시된 마태복음 25:44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상호원조 거부를 '주'를 "공양하지 않았다/돌보지 않았다"(ou dihnkonhsamen)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한다. 여기서 '돌보다'는 의미는 앞에서 다룬 누가복음 22:26에 나오는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의 '섬기다(diakonew)와 같은 동사다. 이것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의 빛에서 볼 수 있는 자선가 사상은 '지배'나 '압제'가 아닌 예수의 제자도에 근거한 '섬김/봉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가치전환을 제시한다.

3. 초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베이뉴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에게서 시작된 상호부조와 평등의 소중파적인 도덕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추종하는 초기 기독교를 통해서 관철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⁴⁹⁾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와 바울의 자선가 사상을 다룰 것이다.

3.1. 사도행전

이런 과정은 누가의 문서(Luke-Acts) 중에 하나인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룰 수 있는 본문은 소위 '초기공산주의'(early

49) P. Veyne, *Brot und Spiele*. 45. 베이뉴는 "상호간에 돕고 구제금을 주는 대중도덕은 소중파도덕이 되었다"(Die Volksmoral der gegenseitigen Hilfeleistung und der Almosen wurde zu einer Sektenmora)고 말한다.

communism)로 알려진 사도행전 2:43-47과 4:32-37의 본문이다. 특히 이 두 개의 본문 중에서 2장 44절과 4장 32절에는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apanta koina)는 표현이 나오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의 면모를 보여 준다.⁵⁰⁾ 여기서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은 재산의 공동소유를 의미한다.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재산의 공동소유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모델이었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된다.⁵¹⁾ 누가문서 안에서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사도행전 2:43-47과 4:32-37의 두 본문은 누가의 문체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요약문(summary)이다. 이 요약문이 누가의 이상적인(ideal) 교회관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기에 언급되는 공동소유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형태는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재산의 공유나 혹은 상호부조에 대한 사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개의 본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현상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두 본문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2:44의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eion apanta koina)와 4:32의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hē autoij apanta koina) 라는 진술이다. 주석가들은 이 두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기독교의 공동소유를 4:32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kardia kai. yuch mia) 이라는 정신에 기초한 ‘사랑의 공산주의’(Liebescommunismus)라고 부르기도 한다.⁵²⁾ 이 정신 안에는 고대 세계의 우정(friendship)과 구약에서 강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신 6:5) 라는 정신이 들어있다.⁵³⁾ “마음

50) G. Theißen, “Urchristlicher Liebescommunismus. Zum ‘Sitz im Leben’ des Topos apanta koina, Apg 2,44 und 4:32,” T. Fornberg and D. Hellholm, eds., *Texts and Contexts. Biblical Texts in Their Textual and Situational Contexts*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1995), 689-712.

51) 공동소유의 진위에 대한 논란은 G. Theißen, “Urchristlicher Liebescommunismus”, 692를 참조하라.

52)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E. Troeltsch 이다. 그의 책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Tübingen: Mohr, 1912), 49,

과 뜻을 다하여” 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수의 가르침을 토대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급진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33절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참조하라). 여기에는 두 본문이 보여주는 공동소유와 상호부조의 방식이 이미 예수에게서 드러난 것처럼 당시 권력을 가졌던 기부자들이나 자선가들이 보여주는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임을 제시한다.⁵⁴⁾

2:43-47 문맥의 강조점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kai. ta. kthmata kai. taj uparxeij epipraskon kai. diemerizon auta. pasin kaqoti an tij creian eieen) 는 것이다(45절). 그런데 이것이 4장 35절에서는 “사람들이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필요한 사람 각자에게 분배되었다” (eti qoun para. touj podaj twh apostolwn diedideto de. ekastw kaqoti an tij creian eieen)로 나온다. 이 언급은 사도들이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발적인 기부와 분배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배를 균등하게 나누는 과정은 디아코니아 제도(institution)의 시초를 암시한다(행 6:1-6을 비교하라).⁵⁵⁾

53) H. Conzelmann, *Acts of Apost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34; B.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206.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Eth. Nic.* [9.8, 1168b 6ff])에서 “친구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친구의 물건은 공동의 재산(koina. ta. filwn)이다”라고 말한다. H. Conzelmann, *Acts of Apostles*, 34에서 재인용.

54) 윤철원, 『사도행전 다시 읽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84는 사도행전에서 “고대 세계의 사회관계: 후원자와 피보호자(Patron-Client)”의 불평등관계가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이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초기 기독교의 이런 사상이 유대교적인가? 아니면 그레코 로마 세계의 이상(ideal)인가? 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5-6장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유대교적인 이상(ideal)이 더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것을 위해서는 B.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204-210; R. Pesch, *Die Apostelgeschichte (Apg 1-12)*, EKK V/1 (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Verlag, 1986), 182-184.

이런 보도는 초기 기독교가 예수의 제자도를 중심으로 신자들의 공동 생활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물건을 공유했으며, 사도들은 공동 생활을 위한 공동물건에 대한 분배를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론 4:36-37 과 이어지는 5:1-11 의 이야기 안에는 이와 같은 공동소유와 분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그룹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공동소유와 분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성령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그런 행위를 징벌이라는 예를 통해서 비판한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소유와 분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신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⁵⁶⁾

물론 이 사랑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된다. 그러나 공동소유와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행 6:1-7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구성원의 갈등을 통해서도 일정기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6장이 제시하는 상황은 초기 기독교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출생의 유대인 그룹과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그룹의 공존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 간에 아람어를 말하는 그룹과 헬라어를 말하는 그룹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상황에 의거해서 보면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룹의 인원이 수적인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갈등의 원인은 헬라어를 말하는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식사의 원조를 받는 과정(en th/ diakonia| th/ kachmerinh)'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서 연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맥은 이러한 분배의 과정을 '원조/봉사(diakonia)의 개념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사회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의 어원이

55) R. Pesch, *Die Apostelgeschichte (Apg 13-28)*, EKK V/2 (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Verlag, 1986), 183.

56) G. Theißen, "Urchristlicher Liebeskommunismus", 694.

되며,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일어난 상호부조의 연속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변화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던 분배와 상호부조가 초기 기독교의 성장으로 히브리어(아람어)를 구사하는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인들과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말씀의 봉사(diakonia tou logou)와 식탁의 봉사행위(diakonein trapezaij)를 구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른다(6:2, 4). 이것으로 초기 기독교는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선포행위와 공동소유와 분배를 이루기 위한 사회봉사를 위한 제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⁵⁷⁾

3.2 바울의 자선가 사상

바울의 자선가 사상은 그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인용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makarion estin mallon didonai h' lambanein)는 “주 예수의 말씀들의”(oi logoi, tou kuripu Ihsou)에서 출발할 수 있다. 타이센은 이 말이 원래는 당시 사회 상류층의 격언이었지만, 여기서는 육체노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좌우명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 지고 있으며, 아무런 소유가 없는 사람도 포기의 자세를 통해서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집단 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고 지적한다.⁵⁸⁾ 이처럼 누기는 바울의 전통과 당시의 격언들을 주님의 말씀과 연결하면서 그것을 예수의 사회적인 관심과 연결한다(눅 6:30-46; 10:30-37).⁵⁹⁾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

57) G. Theißen, “Urchristlicher Liebeskommunismus”, 695은 교회 안에서 감독이나 집사들 같은 직무가 이미 저자 누기의 시대에는 확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58) 게르트 타이센, 『기독교의 탄생』, 181-183; 게르트 뤼데만, 『사도행전』, 김충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355.

59) Pesch, *Die Apostelgeschichte*, 206.

은 자신이 사도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자발적인 섬김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⁶⁰⁾

바울의 자발적인 섬김의 경제적인 상호부조는 그가 쓴 편지들 안에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서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언급한다(갈 2:10; 고전 16:1-4; 고후 8-9; 롬 16:1-4). 그의 편지들 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요청은 “초대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원조활동”(die größte Hilfsaktion der Urchristenheit)과 연결되는 자선가사상과 잘 연결된다.⁶¹⁾

3.2.1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자선가 사상의 수직적인 구조가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예(exemplum)는 바울의 갈 2:10; 고전 16:1-4; 고후 8-9장, 롬 15: 25-31의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이 이야기들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원조하기 위한 자금은 ‘헌금(logeia)⁶²⁾으로 규정된다.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양여(讓與)를 뜻하는 것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는 “신에게 제물을 헌납하는 것”을 뜻하는 제의적인(cultic) 의미를 가지며,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통해 자선을 위한 기준을 ‘아무 의도 없는 자발적

60) 게르트 뢰데만, 『사도행전』, 353; 임진수, “바울의 고별설교와 직제 연구”, 『신학과 세계』 59 (2007), 57-86.

61) A. Lindemann, “Hilfe für Armen: Die Jerusalem-Kollekte des Paulus als > diakonisches Unternehmen<”, *Glauben, Handeln, Verstehen*, WUNT 282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56, 253-283.

62) 개역개정판 성경은 ‘연보(捐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개신교가 출발하던 당시의 표현에서 온 것이다.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서울: 홍성사), 2006, 178.

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⁶³⁾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갈 2:1-10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초대기독교의 처음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와 관련이 있다(행 15:1-21). 바울은 갈 2:1-10에서 기독교의 선교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 바울과 바나바로 대변되는 이방인들 교회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말한다.⁶⁴⁾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변자들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μονον των πτωχων ιθα μνημονευμεν)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의미가 영적인(spiritual)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지 논란이 되었지만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 즉 가난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기독교들을 말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여기서 언급되는 '가난한 자들이 바울의 편지들 안에서 '성도들'(οι αγιοι)로 언급되다가(롬 15: 25, 31; 고전 16:1; 고후 8:4; 9:1,12) 롬 15:26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οι πτωχοι των αγιων των εν ιερουσαλη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⁶⁵⁾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회의 결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공존을 이끌어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고전 16:1-4; 고후 8-9장, 롬 16:26-31에서 계속 언급된다. 따라서 바울은 최초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합의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했음을 알게 된다.

3.2.2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헌금을 모으는 구체적인 과정은 고린도전서 16:1-4에 처음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헌금에 대한 바울의 신학이다. 바울

63) A. Lindemann, "Hilfe für Armen", 258의 각주 24에서 재인용.

64) 이 문제와 관련된 유용한 해석은 H.D. Betz, 『갈라디아서』,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36-240을 보라.

65) H. D. Betz, 『갈라디아서』, 238.

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원조를 “성도를 위한 헌금”(logeia thj eij touj agiou) 으로 규정한다.⁶⁶⁾ 이 표현에는 ‘성도들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헌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며, 이어지는 진술들 안에서 이미 헌금을 모으는 과정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을 말하고(1절), 그 헌금이 매주 안식일(katamian sabbatou ekastoj)에 정기적으로 모금되었다는 것, 그 헌금은 사람들이 저축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당위적인 것(parl eautw| tiqetw qhsaurizwn)임을 강조하고 있다(2절). 이 헌금은 교회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돈을 자기의 역량에 맞게 자발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은 개인의 형편에 맞게 개인의 자발적인 회사로 이루어졌다(고전 1:26-31; 11:20-22). 바울은 이렇게 모금된 헌금을 “예루살렘을 위한 너희의 은혜”(hv carij umwh eij Ylerousalhm) 라고 부른다(3절, 비교. 고후 8:4 이하). 그리고 3절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검증된 구체적인 사람들(ouj ean dokimashte)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대변자들이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모금된 헌금이 중간에서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린도 교회가 목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되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동행할 의사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4절). 바울은 이런 진술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한 경제적인 원조가 아닌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인 사이의 일치와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66)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6,12-11,16)*, 425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헌금’(logeia)이라는 용어가 ‘은혜’(carij, 고후 8:4 이하), ‘연합’/‘사귄’(koinwnia, 롬 15:26), ‘봉사’(diakonia, 롬 15:31; 고후 8:4; 9:1), ‘예배’(leitourgia, 고후 9:12), ‘축복’(eulogia, 고후 9:5)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3.2.3 고린도후서 8-9장

바울의 헌금모금은 당시의 수직적인 자선가 사상의 기초와 다르게 수평적인 상호원조라는 형식으로 그의 선교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8-9장은 그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다. 바울은 8장에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1-5절에서는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금의 풍성한 결과를 모범(exemplum)⁶⁷⁾으로 제시한다(1절). 이것은 6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고린도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5절 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한 *logeia*(헌금)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연보’(aplothj)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헌금을 이야기 한다(2절).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함, 순수함, 관대함을 의미하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성이 없는 선행을 말한다.⁶⁸⁾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주는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약과 신약, 고대 세계에서 미덕으로 칭송을 받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연보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salvation in Christ)과 연결한다.⁶⁹⁾ 그는 헌금한 사람들의 극심한 가난(h' kata. baqouj ptwceia autwh)이 많은 자발적인 헌금(to. ploutoj thj aplothtoj autwh)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다. 이들의 자발적인 행위는 3절에서 강조되며, 4절은 훗날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을 규정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thn koinwnian thj diakonijaj thj eij touj agiouj) 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헌금은 단순한 자발적인 원조나 희사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활동과 연결된 상호부조와 가난한 자들의 협력이며 종교적인 의미의 예배/섬김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된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디아코니아(diakonia)로 규정하고 그의 선교를 통해서 신앙의 영역과 상호부조라는 생활의 영역을 하나로 통합

67) H. D. Betz, *2 Corinthian 8 and 9* (Philadelphia: Fortress, 1985), 42.

68) W. Bauer and Aland,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th ed., (Berlin and New York: Waltr de Gruyter, 1988), 171.

69) H. D. Betz, *2 Corinthian 8 and 9*, 45.

하고 있다.⁷⁰⁾ 바울은 7절에서 고린도인들의 예배를 대변하는 행위들이 믿음, 말, 지식, 사랑과 함께 은혜로 풍성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에서 헌금을 기독교적이고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그는 헌금에 대한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유익(benefit)에 대해서 되갚는 것이라고 말한다.⁷¹⁾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하여 헌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평등하게(isothj) 된다고 강조한다(13-14절).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부유한 지위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예루살렘 유대기독교인들의 상부상조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은 그의 헌금모금 활동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절은 예루살렘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 고린도가 위치한 아가야 반도와 마케도니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3절은 편지의 수신자인 아가야 지방의 헌금모금의 주역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활동이 미진하거나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상을 준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⁷²⁾, 1절부터 헌금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 위한 섬김/예배'(diakonia thj eij touj agiouj) 라고 말한다(비교. 고후 8:4).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헌금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 헌금(logeia)이나 선행(aplothj) 이라는 용어 대신 '축복을 의미하는 eulogia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의 뜻은 '축복을 통해서 주어진 충만함을 나타내는 부유한 성과'를 의미하며⁷³⁾, 그 축복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⁷⁴⁾ 즉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언급된 은혜를

70) H. D. Betz, *2 Corinthian 8 and 9*, 46은 디아코니아(diakonia)가 이미 행정적인 용어(administrative term) 라고 말한다.

71) H. D. Betz, *2 Corinthian 8 and 9*, 61.

72) H. D. Betz, *2 Corinthian 8 and 9*, 90.

73)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53.

함께 나누는 헌금이 여기서는 '축복의 선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어는 9장 5절에서 두 번 언급되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헌금활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처럼(wj eulogian)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욕심과 같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된다(mh. wj pleonexian)고 말한다. 그는 6-10절까지는 소위 농부들의 법칙을 반영한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비유를 진술하고, 이것을 토대로 11절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모든 일에 그들이 풍성해지기(en panti. ploutizomenoi eij pasan aplothta) 강조하며 그의 헌금모금을 '예배의 봉사(h' diakonia thj leitourgiaj tauthj) 라는 말로 결론짓는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말한다(12절). 이로써 그는 헌금이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며, 헌금(logeia)의 실제적인 결과는 신앙을 토대로 한 공동의 사귄(koinwnia)이며 선행(aplothj)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중과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을 돕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3.2.4 로마서 15장 25-32절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들 중에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료는 로마서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로마 방문계획을 서술하면서 이미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다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의 헌금활동을 언급한다(15:25-32). 주석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곳의 방문을 알리며 그곳의 교회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로마서는 지금까지 다룬 바울의 헌금 모금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한다.⁷⁵⁾ 바울은

74) H. D. Betz, *2 Corinthian 8 and 9*, 96.

75) 페터 슈틀마허, 『로마서주석』, 장홍길 역(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400 이하.

지금까지 그가 노력했던 헌금활동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Nuni. de. poreuomai eij vlerousalhm diakonwh toij agioij) 이라고 말한다(25절). 특히 이 구절과 관련하여 “지금”(nuni)이라는 강조를 통하여 헌금활동이 종결되어 전달하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지금까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보여준 헌금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며(eudokhsan...poihsasqai), 그 활동을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과의 사귄/교제(koinwnian tina. eij touj ptwcouj twh agiwn twh en vlerousalhm) 라고 말한다(갈 2:10; 고전 16:1-4; 고후 8-9장).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 사귄/교제(koinwnian)는 매우 친밀한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으로써 바울이 선교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활동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상호신뢰와 상호부조라는 관계를 가지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26절에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이방인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빛을 쬐다면(eiv gar toij pneumatikoij autwh ekoinwnhsan ta eqnh),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orei lousin kai. en toij sarkikoij leitourghsai autoij)고 서술한다.⁷⁶⁾

이런 일련의 진술들은 바울이 행한 헌금활동이 사회봉사이며, 자발적인 원조와 기독교적인 상호간의 나눔이라는 초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의 뚜렷한 단면을 보여준다. 바울이 보여주는 헌금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순수하고 선량한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된 인간애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것을 받은 이방인 교회와의 “공동협력과 더불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한다”⁷⁷⁾는 의미를 가진다. 바울은 헌금모금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의 출발점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76) 페터 슈틀마허, 『로마서주석』, 401.

77) 에른스트 케제만, 『로마서』,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644.

것을 강조하고, 그가 현금을 전달한 후에는 이러한 유대관계를 확인한 후 로마교회에 들려서 그들로부터 다시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15:19, 22-24, 28). 그러나 바울의 진술 속에는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대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당할 위험을 감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의 일이 받아들여지기(h̄ diakonia mou h̄ eij̄ Ilerousalhm euprosdektoj̄ toij̄ agiōij̄ genhtai)을 기대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섬김으로서의 자발적인 경제적인 원조를 담당하는 현금을 모으는 봉사의 직무(h̄ diakonia)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써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상호간의 친밀한 교제(koinwnia)를 통하여 복음의 정신에 기초한 자발적인 경제적인 원조를 실현하는 수평적인 차원의 자선이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다룬 논의는 그레코-로만 세계의 수직적인 자선가 사상과 당시의 이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대안을 제시했던 예수의 지위포기와 상호부조, 초기 기독교의 자발적인 공동소유와 제자들의 평등한 분배,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현금이었다.

이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와 초기 기독교는 당시 사회구조에서 파생하는 지배층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되던 자선가 사상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협력, 상호부조, 섬김과 배려라는 자발적인 차원의 가치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로 예수와 그를 따르던 공동체의 소종파적인 상호부조는 점차적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고, 바울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소종파의 상호부조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교회는 유대

교와 당시 사회의 대중도덕에서 강조하던 수평적인 상호부조라는 입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새롭게 해석한 새로운 대안을 통하여 소종파 도덕의 차원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소종파 도덕은 지금까지 언급한 상호부조를 통하여 당시 소수의 지배계급보다는 하층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기독교 발전에 기여했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인류를 향한 인간애를 위한 보편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며 당시의 수직적인 차원의 자선가사상을 수평적인 차원의 상호간의 배려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차원으로 변화시켜나갔다. 이것이 훗날 이어지는 초대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으로 발전하여 기독교는 사회봉사라는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⁷⁸⁾

78) 각주 6의 남성현의 논문을 참조하라.

<참고문헌>

- 게르트 뤼데만, 『사도행전』, 김충연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 게르트 타이젠, 『기독교의 탄생』, 민경식, 박찬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남성현, "4-5세기 기독교 성인전에 나타난 '가난한' '자선사업가' (euergetes)", 『서양고대사연구』, 25 (2009), 301-337.
- 노성기, "자선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신학전망』 175 (2011), 278-305.
- 베츠, H. D., 『갈라디아서』,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슈틀마허, 페터, 『로마서주석』, 장홍길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 아우네, 데이비드 E., 『요한계시록 17-22』, WBC 52하,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5.
- 윤철원, 『사도행전 다시 읽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서울: 홍성사, 2006.
- 임진수, "헬레니즘기 이후 서양 고대 세계의 지배자 숭배에 대한 저항: 유대교와 기독교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29 (2011), 149-194.
- 장양미, "신약성서로 세상읽기(2): 헌금과 자선", 『기독교사상』, 646 (2012), 148-157.
- 조병하, "Cyprianus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과 자선'에 대한 교훈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26 (2010), 171-199.
- 최무열, "구약과 신약 및 교부시대 자선사상의 이음줄 역할로서의 토비트서 연구", 『부산장신논총』 8 (2008), 301-328.
- 케제만, 에른스트, 『로마서』,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헝겔, 마틴, 『신구약 중간사』, 임진수 역, 파주: 도서출판 살림, 2004.
- Bertram, G., "euergetew, euergethj, euergesia," *ThWNT* II, 651-653.
- Betz, H. D., *2 Corinthian 8 and 9*, Philadelphia: Fortress, 1985.
- Boulanger, A., *Aelius Aristide et la sophistique dans la Provincia d'Asie*, Paris: De Boccard, 1923.
- Bovon, F.,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9,28-24,53)*, EKK III:4,

- Zürich/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2009.
- Danker, F. W., *Benefactor: Epigraphic Study of a Graeco-Roman and New Testament Semantic Field*, St. Louise: Clayon Publishing House, 1982.
- Deissmann, A., *Licht vom Osten*, Tübingen: Mohr, 1923.
- Fitzmyer, J.,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ncB 28a*, Garden City: Double Day & Company, Inc., 1985.
- Gardner, G., "Benefaction in the Second Century B.C.E.", *JBL* 126:2 (2007), 327-343.
- Grundmann, W., *Das Evangelium nach Lukas*, Berlin: Evangelischer Verlagsanstalt Berlin, 1984.
- Herz, P., "Der Kaiserkult und Wirtschaft", M Ebner and E. Esch-Wermeling, eds., *Kaiserkult, Wirtschaft und spectacula*,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2011.
- Joubert, S., *Paul as Benefactor. Reciprocity, Strategy and Theological Reflection in Paul's Collec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Klostermann, E., *Das Lukasevangelium*, HNT 5, Tübingen: Mohr, 1924.
- Koester, C. R., "The Savior of the World (Jn 4:42)", *JBL* 109 (1990), 665-680.
- Lindemann, A., "Hilfe für Armen: Die Jerusalem-Kollekte des Paulus als ≫ diakonisches Unternehmen ≪", *Glauben, Handeln, Verstehen*, WUNT 282,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53-283.
- Lull, D. J., "The Servant-Benefactor as a Model of Greatness (Luke 22:24-30)", *NT* 23:4 (1986), 289-305.
- Luz, U.,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t 18-25)*, EKK 1:3, Zürich/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1997.
- Marrou, H. I., *Historie de l'éducation dans l'antiquité*, Paris: Seuil, 1948.
- Matthews, S., "Ladies' Aid: Gentile Noblewoman as Saviors and Benefactors in the Antiquities", *HTR* 92:2 (1999), 199-218.
- Neyrey, J. H., "God, Benefactor and Patron: The Major Cultural Model for Interpreting the Deity in Greco-Roman Antiquity", *JSNT* 27:4 (2005), 465-492.
- Pesch, R., *Die Apostelgeschichte (Apg 1-12; Apg 13-28)*, EKK V:1-2,

- 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Verlag, 1986.
- Roloff, J., *Der Brief an Timotheus*, EKK XV, 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1988.
- Schrage, W.,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Kor 6,12-11,16)*, EKK VII:2, 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ner Verlag, 2001.
- Theißen, G., "Die Rede vom großen Weltgericht (Mt 25,31-46). Universales Hilfsethos gegenüber allen Menschen?", *Diakonie der Versöhnung*, FS. Theodor Strohm, ed. A. Götzlmann, V. Herrmann, Stuttgart: Quell Verlag, 1998, 60-70.
- Theißen, G., "Urchristlicher Liebeskommunismus. Zum 'Sitz im Leben' des Topos a[panta koina],, Apg 2,44 und 4:32", T. Fornberg and D. Hellholm, ed., *Texts and Contexts. Biblical Texts in Their Textual and Situational Contexts*,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1995, 689-712.
- Troeltsch, E.,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Tübingen: Mohr, 1912.
- Witherington III, B., *The Acts of the Apostles*,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 Veyne, P., *Brot und Spiele. Gesellschaftliche Macht und politische Herrschaft in der Antike*, K. Laerman und H. R. Brittnacher, tran., München; Dtv, 1994.

http://de.wikipedia.org/wiki/Panem_et_circenses

http://de.wikipedia.org/wiki/Panem_et_circenses

한국신학정보원(www.iktinos.org) 한국신학, 종교, 색인, 초록 데이터베이스

<초록>

그레코-로만 세계와 초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euergetism)

임진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신약학)

이 논문은 헬레니즘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면서 만들어 냈던 고대 세계의 그레코-로만 세계의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이미 헬레니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서양 문화의 만남과 문화의 융합 혹은 충돌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과정에서 당시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자선가 사상을 발전시켜나갔다. 자선가 사상은 통치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자선과 그것을 받는 백성들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존경을 표하는 상호호혜와 교환의 의미를 가진다.

이 사상은 고대세계의 그레코-로만세계를 아우르는 경제사상이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과 로마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패권을 잡은 후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개념은 그레코-로만 세계에 형성된 유대교 문헌과 당시의 로마의 시민들이 남긴 문헌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헬레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한 유대교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자선가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예수와 초기 기독교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자선가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기독교

의 자선가 사상은 기존의 수직적인 자선가 사상을 수평적인 차원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예수와 초기 기독교가 그레코-로만세계의 자선가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그런 이해가 당시 세계의 경제관념과 가치변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Abstract>

Euergetism in the Greco-Roman Antiquity and in Early Christianity

Prof. Jinsu 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an economic idea in the Greco-Roman antiquity that was produced by the encounter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which happened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Hellenism. The idea of Hellenism itself already implies the meeting, fusion and clash of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During the periods of these processes, the rulers developed the idea of euergetism in order to propagandize and justify their imperialistic reign. Euergetism here means reciprocity and exchange between the rulers and the people in which the former took initiative to give their money and goods and the latter as the beneficiary expressed respect to the rulers in return.

Euregetism is the representative economic idea of the Greco-Roman antiquity in general, and this thought played an im-

portant role for the period between the eastward expedition of Alexander the Great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the central site of whose dominance was the Mediterranean area. This idea is expressed well in the literature and epigraphs of the Romans and the Jews. But this euergetism ran into criticism by the Judaism that developed in reaction to Hellenism. And it obtained a new meaning and a new dimension in the days of Jesus and while his legacies were developing into early Christianity. Jesus and his movement transformed the existing vertical euergetism of the rulers into the horizontal solidarity. In short, this article will study how Jesus and the early Christianity understood euergetism in the Greco-Roman antiquity. In so doing, it will help us learn how this understanding contributed to the changes in economic ideas and values of the worlds where it arose.

<주요어>

경제, 자선가사상, 자선가, 상호호혜, 교환, 헌금

<Key-words>

economics, euergetism, benefactor, reciprocity, exchange, offering

* 등록일 2014년 8월 15일, 수정일 2014년 8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31일